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
- Bloomberg: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“금리 당분간 동결...인상, 인하 가능”
- WSJ: 트럼프 “파월 의장 그만둘 때까지 사임하지 않으면 해고” 위협
- YahooFinance: JP모건 CEO “휘발유 4달러 됐지만 미소비 유지돼”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모건스탠리도 주식 거래 부문 최대 실적 기록

[중동 위기]
- Bloomberg: 트럼프, 유럽 동맹국으로부터 ‘고립’

[글로벌 경제/오일 여파]
- TheEconomist: ‘미 이란 휴전되어도 경제 손실 막지 못한다’
- CNNBusiness: IMF “올해 글로벌 오일 부족 사태 및 침체 가능성도”

[물류]
- WSJ: UPS, 수작업 스캔 대신에 배송 추적 기술 시스템으로

[주택]
- CNBC: 모기지율 한 달 만에 떨어지면서 재융자 신청 증가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Fed’s Hammack Says Baseline Is Rates on Hold for a ‘Good While’
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“금리 당분간 동결 바람직...인상, 인하 가능성”

-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Beth Hammack은 금리는 현재 적절해 당분간 동결이 바람직하지만, 상황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.
- 그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한동안 유지하겠지만, 경제 데이터에 따라 금리 완화 또는 긴축 모두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.
- 연준은 지난해 말 세 차례 인하 후 올해 금리를 동결 중이며, 이란과의 전쟁이 경제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. 유가 충격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며 3월 물가가 약 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.
- 올해 의결권을 가진 Hammack은 이번 충격이 물가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한편, 소비를 위축시켜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

기사

WSJ: Trump Threatens to Fire Powell if He Doesn’t Resign When Fed Chair Term Ends
트럼프 “파월 의장 그만둘 때까지 사임하지 않으면 해고” 위협

- 트럼프는 연준 Jerome Powell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하며, 연준 빌딩 리모델링 관련 법무부 조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.
- 연준 관리들은 해임 사유를 제한하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, 해임 여부에 대한 문제는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서 별도의 사건으로 검토 중이다.
- 파월 의장의 임기는 다음 달 끝나지만, 그는 2028년까지 의결권이 있는 이사로 계속 남을 수 있다.

기사

YahooFinance: US consumers haven't fallen off a cliff with $4 gas: JPMorgan CEO Jamie Dimon
JP모건 CEO “휘발유 4달러 됐지만 미소비 유지돼”

- 미 금융계에 영향력이 큰 JP 모건의 CEO인 Jamie Dimon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라도 소비가 버티는 이유는 결국 일자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.
- 그는 “휘발유는 소비 지출에서 비중이 크지 않다. 저소득층엔 부담이 더 크지만, 사람들은 여전히 일자리와 임금을 얻고 있다. 차 수리나 의료비가 필요하면 부업을 하거나 여행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한다.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이며, 현재 고용은 충분하고 실업률도 낮다”고 설명했다.
- 미국은 3월에 예상보다 많은 17만8천 개 일자리가 늘었고, 실업률은 4.3%로 하락했다.
- 다만 중동 분쟁이 지속될 경우 이런 소비 회복력이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며, 소비 여건은 전반적으로 엇갈린 상황이다.

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” Morgan Stanley Stock Traders Join in Wall Street’s Windfall
모건스탠리도 주식 거래 부문 최대 실적 기록

- Morgan Stanley의 주식 거래 부문이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. 이 기간에 51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.
-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1천1 백 84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됐고, 투자은행 수수료는 전 분기 대비 36% 증가해 2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.

- 비이자 비용(non-interest expenses)은 135억 달러로 12% 증가했으며 감원과 관련된 1억 7천8백만 달러의 퇴직금 비용도 반영됐다

기사

[중동 위기]

Bloomberg: Trump's Isolation Deepens as His Ties With Longtime Allies Fray
트럼프, 유럽 동맹국으로부터 '고립'

- 이란 전쟁과 트럼프의 최근 강경한 발언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간 동맹 관계는 붕괴 직전까지 흔들렸다.
- 미국은 많은 유럽 동맹국에 사실상 외교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며 분쟁 관련 계획이나 평화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.
- 물론 유럽 관리들은 안보와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이 균열이 영구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지만, 중동에서 트럼프가 촉발한 위기를 해소할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.

기사

[글로벌 경제/오일 여파]

TheEconomist: A ceasefire will not prevent the Iran war's economic harm
'미 이란 휴전되어도 경제 손실 막지 못한다'

- 만약 미국과 이란 간에 휴전이 유지된다면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. 그러나 주식 시장은 여전히 전쟁의 여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.
- 원유 생산 시설을 재가동하고 유조선을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. 화물 보험료는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고, 이란이 새로운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.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적 영향은 전 세계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것이다. 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, 기업들 역시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를 키울 것이다.
- 또한 이번 사태는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다. 이번 위기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을 벗어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,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천연가스의 새로운 공급원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.

기사

CNNBusiness: IMF sees global oil shortfall this year and warns Iran war could tip world into recession
IMF "올해 글로벌 오일 부족 사태 및 침체 가능성도"

- IMF는 이란과의 전쟁이 이번 주에 끝나더라도 올해 세계는 석유 공급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. 이는 이번 분쟁의 심각한 경제적 여파에 대한 주요 경고로 볼 수 있다.
-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Pierre-Olivier Gourinchas는 CNN 인터뷰에서, "오늘 밤 모든 상황이 멈추고 내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 해도 올해는 여전히 석유 부족이 발생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- 또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3월 세계 석유 공급이 하루 1천10만 배럴 감소했으며, 이는 “역사상 최대 규모의 차질”이라고 발표했다.

기사

[물류]

WSJ: UPS Seeks to Replace Manual Scans With Tracking Tech
UPS, 수작업 스캔 대신에 배송 추적 기술 시스템으로

- UPS는 수작업 스캔을 줄이기 위해 배송 추적 기술로 전환하고 있다.
- 이 회사는 미국 네트워크 전반에서 화물을 추적하기 위해 RFID(무선 주파수 인식) 기술에 현재까지 1억 달러를 투자했다.
- 이 기술은 2024년 이후 잘못 적재되는 화물 건수를 약 70% 줄였고, 하루 약 2천만 건의 수작업 스캔을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.
- 또한 RFID 태그(전자 라벨) 비용이 개당 몇 센트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UPS는 이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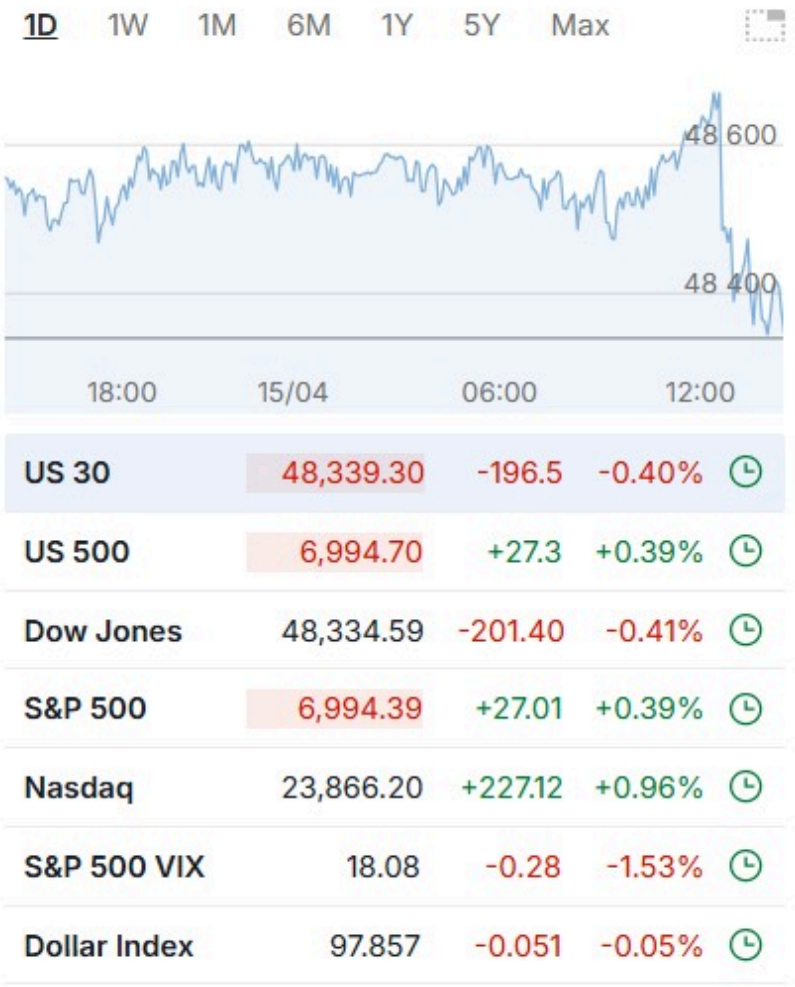
[주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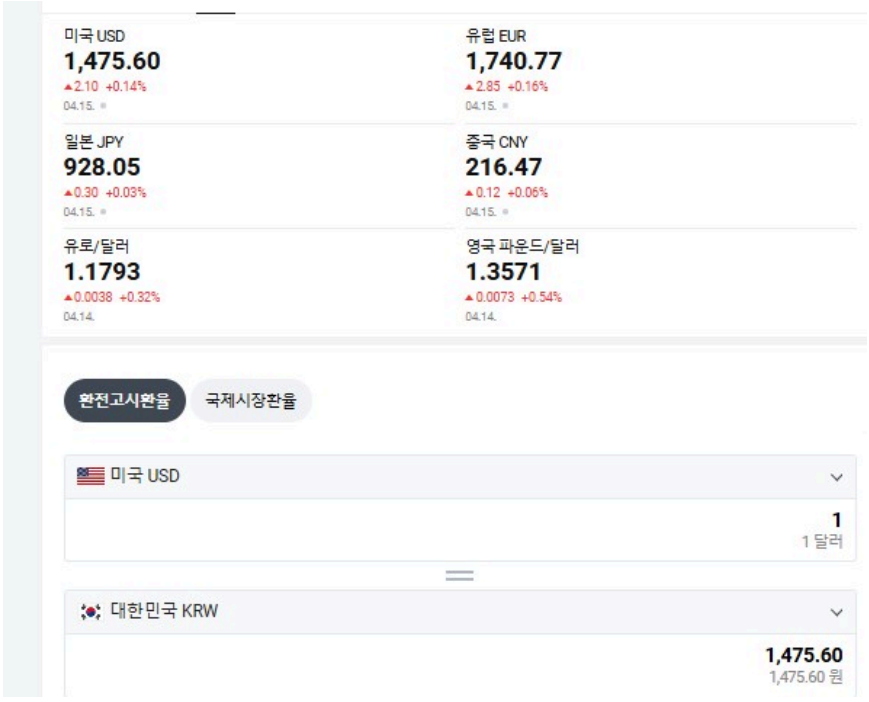
CNBC: Mortgage applications rise as rates fall to one-month low
모기지율 한 달 만에 떨어지면서 재융자 신청 증가

- 미 주택 모기지 금리가 최근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주택 대출 신청이 증가했다.
- 30년 고정금리 기준의 평균 계약 금리는 지난주 6.51%에서 6.42%로 하락했다.
- 금리 하락 영향으로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재융자 신청은 전주 대비 5% 증가했다. 반면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신청은 같은 기간 1% 감소했다.

기사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]

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